

## 질적 연구 접근법의 진화를 위한 모색: 비판이론에 주목하자

박왕규<sup>1)</sup>

### 국문요약

그동안의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방법은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적인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비판적 패러다임과 해체적 패러다임에 주목하여 질적 연구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 참여적 실행연구, 포토보이스,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접근법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판이론과 해체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질적 연구접근법은 근대적 세계관인 실증주의, 이성주의 및 인간중심주의와는 그 결이 다르며, 실천으로서의 연구와 문제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또 연구참여자를 공동연구자로 위치짓고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둘러싼 담론의 영역에서 대항담론의 형성을 위한 비판적 담론분석과 현장의 사람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적 실행연구의 활성화, 질적 연구 접근법의 철학적 기초를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재편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질적연구접근법, 비판적 패러다임, 해체적 패러다임, 비판적 담론분석, 참여적 실행연구

1) 공공선연구자협동조합, 이사 (wgpark21c@hanmail.net)

## Exploring the transform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Emphasizing a Critical Perspective

Park, Wanggyu<sup>1)</sup>

### Abstract

Qualitative research has predominantly employed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interpretivist paradigm. However, research methods rooted in the interpretivist paradigm focus primarily on understanding phenomena themselves, preventing qualitative research from evolving into a more practice-oriented approach aimed at problem-solving. This study seek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by focusing on the critical paradigm and deconstructive paradigm, which are not adequately covered in conventional qualitative research textbooks.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on key methodologies, includ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hotovoice, postcolonialism, and posthumanism,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based on critical theory and deconstructive paradigms differ significantly from modernist worldviews such as positivism, rationalism, and anthropocentrism. These approaches emphasize research as a form of practice and problem-solving, positioning research participants as co-researchers and employing multilayered case studies as a foundation. In the realm of discourse surrounding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ortant directions: (1) expanding the us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counter-discourses, (2) activating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to collaboratively address issues with individuals in the field, and (3) revising educational curricula and textbooks to strengthe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critical paradigm, deconstructive paradig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

1) Director, Researcher's cooperative for the public good (wgpark21c@hanmail.net)

## I. 서론

질적 연구란 무엇인가?

A : 질적 연구는 통계를 주로 사용하는 양적 연구가 아닌 것이다.

B : 연구패러다임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이론, 해체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질적연구는 해석주의, 비판이론, 해체주의 관점을 따른다.

C : 질적 연구접근법으로는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가 있다.

위의 진술들은 질적 연구에 대해 직관적인 특징과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만, 질적 연구의 문제의식, 철학적 전통과 방법론적 함의를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공허하기까지하다. 도대체 질적 연구란 무엇인가. 양적 연구와는 다른 질적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질적 연구접근법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질적 연구의 대표적 교과서인 Creswell의 ‘질적 연구방법론’(2010)에서 질적 연구의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 틀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질적 연구의 접근법은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5가지 접근법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표에 불과하여 수 백년에 걸친 사유와 실천을 이해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그에 비해 연구의 절차적인 방법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질적 연구를 기술적이며 기능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킬 위험마저 있다.

〈표 1〉 Creswell의 패러다임과 질적 연구접근법 분류

질적 연구의 해석적 틀	5가지 질적 연구 접근법
후기 실증주의 사회 구성주의 변혁적/포스트 모던 실용주의 비판, 인종, 페미니스트, 동성애, 장애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자료: Cresswell(2010)

또 김영천은 ‘질적연구 아틀라스’(2019)에서 연구 패러다임을 Lather의 패러다임 분류에 따라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이론, 해체적 패러다임으로 나누고 이 중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해석주의, 비판이론, 해체적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천은 Creswell과 비교하여 해석주의, 비판이론, 해체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의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특징, 개념 및 대표학자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김영천 역시 자신이 스스로 분류한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5가지 접근법의 방법론적 설명과 적용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질적 연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표 2〉 Lather & 김영천의 패러다임과 질적 연구접근법 분류

패러다임	연구방법
실증주의	t검정, 상관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해석주의	문화기술지, 민속방법론,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교육비평
비판이론	인종차별 연구, 성차별 연구, 성취향 차별연구, 비판적 담론분석, 다문화주의, 실행연구
해체적 패러다임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퀴어이론, 포스트포드주의, 후기구조주의적 여성 해방론, 포스트휴먼

자료: 김영천 외(2019)

질적 연구 접근법에 대한 양상한 이해는 질적 연구를 소개하는 교과서의 책임이 크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교과서에서 한 줄로 소개하고 있거나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는 비판이론 패러다임의 비판적 담론분석, 참여적 실행연구, 참여적 실행연구의 한 형태인 포토보이스, 그리고 해체적 패러다임의 포스트식민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질적 연구로서의 기원, 문제의식, 철학적 전통과 방법론적 함의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질적 연구의 특징을 도출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연구에 필요한 질적 연구접근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II. 본론: 비판적 연구접근법 이해

김영천 외(2019)는 질적 연구접근법이 기반하고 있는 해석주의 패러다임, 비판이론 패러다임 및 해체적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을 〈표3〉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질적 연구접근법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반대하여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다층적 의미를 중시하고, 연구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해석과 의미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단순한 분석을 넘어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여 과학적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세 패러다임은 실증주의와는

결이 다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표3>처럼 각 패러다임은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여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려 했지만,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의미 형성 과정이 단순한 법칙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석주의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강조하는 대안적 연구 방법론으로 발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의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석주의는 비판주의 및 해체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그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해석주의가 개인의 의미 형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불평등, 권력 구조, 지배 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집중하여 사회적 변화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개별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역사적으로 형성된 억압적 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해체적 패러다임은 해석주의의 주관적 의미 분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해석은 또 다른 담론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은 존재하지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표 3> 질적 연구접근법의 패러다임의 특징

	해석주의 패러다임	비판이론 패러다임	해체적 패러다임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li> <li>인간의 의식, 신념,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li> <li>특정 사회구성원의 인식, 행위의 패턴 발견</li> <li>객관적, 주관적 연구방법 모두 취함</li> <li>면담 자료, 관찰 기록, 다양한 문서, 인터넷 자료</li> <li>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에 존재하는 힘과 권력의 관계 분석</li> <li>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구조의 모순 비판</li> <li>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율권 부여와 해방 추구</li> <li>이데올로기적 접근</li> <li>연구자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접근(객관적 방법 비판)</li> <li>현장과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강조(실천의 안내로서의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이해와 관점 해체와 재구성</li> <li>기존의 사유나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물음과 도전</li> <li>보편성을 부정하고 다양성과 차이 드러내기</li> <li>기존의 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해석의 거부</li> <li>사회와 문화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의미 드러내기</li> <li>해체적 방법</li> <li>상호텍스트성 강조</li> </ul>

자료: 김영천 외(2019)

본 장에서는 해석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분석하여 모순을 비판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비판이론과 여성의 이해와 이론적 관점을 부정하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해체주의 패러다임을 비판적 연구접근법으로 명명하고 비판이론의 비판적담론분석, 참여적 실행연구, 참여적 실행연구의 한 형태인 포토보이스, 해체주의 패러다임의 포스트식민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을 살펴보고 비판적 연구접근법의 특징을 분석한다.

## 1. 비판적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모든 담론분석은 비판적일 필요가 있는데, 담론분석이 정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이다(Gee, 2014). 따라서 CDA는 언어기호 자체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권력과 정치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이데올로기 작업과 그에 반하는 대항운동 간의 경합을 다루는 것이다(차태서, 2020).

먼저 Fairclough(2013)는 CDA의 세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CDA는 단순한 담론분석이 아니라 담론과 사회적 과정의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초학제적 분석이다. 둘째, CDA는 담론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의 체계적 분석의 형태를 포함한다. 셋째, CDA는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이다. 즉, CDA는 담화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나쁜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

CDA는 물질(사회적 실제)과 기호현상 사이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사고한다. 이는 다시 말해 기호현상이 물질에 대한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변화시킬 수 있기에 변증법적이다. 사회적 관계, 권력, 제도, 신념 및 문화적 가치는 부분적으로 기호현상을 반영하지만 이를 순전히 기호현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되며 기호현상과 기타 사회적 요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Fairclough, 2013).

CDA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담론의 질서이다. 담론의 질서란 사회적 분야, 제도, 조직 등을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의 기호학적 차원이다. 따라서 담론의 질서는 서로 다른 장르, 담론, 스타일 등 의미를 만드는 서로 다른 방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사회적 질서인 것이다. 담론의 질서는 의미를 생성하는데 지배적이거나 주류가 되게 하고, 다른 것들은 주변적이거나 반대적인 것이 되게 한다. 헤게모니는 담론의 질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담론의 질서는 폐쇄적이거나 경직된 체계가 아니라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체계이다. 특정 사회 분야나 제도에서 시작된 담론은 다른 분야에서 재맥락화될 수 있다. 재맥락화는 양가적 성격을 갖는데, 식민화의 과정(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과 대항담론으로의 전유와 통합이다.

Fairclough(2001)는 Roy Bhaskar의 ‘설명적 비판’ 개념을 바탕으로 CDA 5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1단계는 기호학적 측면을 갖는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CDA는 해방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성 소수자, 소수 인종 등의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2단계는 언어적,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장애물을 정의한다. 다양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언어적/비언어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3단계는 사회질서가 사회적 문제를 필요로 하는지 고려한다. 이는 Fairclough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회질서가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하고, 저항하는 방식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와 주류 전략에 맞서고 대안을 지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담론, 내러티브, 주장 등이 경쟁되고 대체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마지막 5단계는 앞의 1단계-4단계까지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비평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CDA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신진욱(2011)은 첫째, CDA 연구자들이 언어학적 배경을 갖고 텍스트 기반 분석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텍스트 분석에 앞서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치우쳐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갖는 이상주의적 해석에 머물러 있으며, 둘째, 많은 CDA 연구자들은 담론투쟁의 장에 개입해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통해 특정한 입장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규범적 판단과 당파적 입장을 ‘선언’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경향이 있고, 셋째, 역설적으로, CDA가 명시적으로 당파적인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너무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비판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신진욱, 201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진욱(2011)은 다음의 두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CDA가 언어학적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담론분석을 정치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비판과 연계하여 현대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구조에 대한 거시이론들을 깊이 있게 소화하여 담론분석의 유기적 일부로 도입해야 하며, 둘째, CDA 연구자들이 한편으로 담론이 지배관계와 불평등의 반영이자 그것을 재생산하는 기능적 구성요소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의 질서가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담론적 경합과 투쟁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배와 투쟁, 구조와 변형이라는 두 차원 간의 이론화가 부재하거나 최소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CDA의 관점을 취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단지 지배기능을 입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론투쟁의 과정과 결과, 지배담론의 지속과 변형, 그리고 그에 결부된 보다 넓은 사회적 갈등과 적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실행연구는 Lewin(1946)의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Lewin(1946)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같은 집단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실행연구를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에 필요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행동의 조건과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실행연구의 한 형태'라고 언급한 것이다. Lewin(1946)은 집단간 관계에 대한 실태파악이 주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피상적이며, 심층적인 탐색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실행연구는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계획수립과 실행, 실행의 결과를 평가, 새로운 계획의 수립으로 이어지며, 나선형의 순환구조로 진행된다.

그러나 실행연구는 Lewin(1946) 외에도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대항하여 실천에 관한 새로운 인식론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Reason & Bradbury, 2001), 실용주의, 인간주의, 구성주의, 복잡성이론, 비판이론 및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연관이 있다(한상희, 2013).

결국 실행연구는 참여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며 가치있는 인간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실용적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참여적이며 민주적인 과정이다(Reason & Bradbury, 2001). 실행연구는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연구와는 연구목적, 지식을 개념화하는 방식 및 실천과의 관계가 다르다. 이는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론, 인식론, 세계관 및 탐구의 본질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Reason & Bradbury(2001)는 다양한 실행연구의 공통된 특징으로 5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실행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유용한 실용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다. 셋째, 실행연구는 참여적이다. 넷째, 실행연구는 구체적인 결과만큼 학습의 과정으로서 탐구과정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진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실행연구는 해방적이다.

Zuber-Skerritt(2001)은 실행연구의 연구절차로 나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선형 모델에 따르면, 먼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변화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실천의 결과를 관찰하여, 관찰결과를 성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행연구는 단순히 기술적이며 실용적인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의식변화와 조직의 경계와 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 해방적인 연구가 될 수 있으며, 복잡한 현장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역량강화와 능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실행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조용환, 2015). 첫째, 실행연구는 철저한 현장연구이다. 실행연구는 현장 밖이 아닌 안에서 실행과 연구가 이루어지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또한 현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실행연구의 목적은 생활세계의 실질적 개선이다. 실행연구는 연구가 이론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관점에 기초를 둔다. 현장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동참하여 함께 해결하여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실행연구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주체 형성을 지향한다. 실행연구는 현장사람들을 연구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 및 주인의 관점으로 사고한다. 연구자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 넷째, 실행연구는 현장이론을 생성하고자 한다. 이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현장지향적인 이론을 생성한다.

실행연구는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기반한 연구를 '연구를 위한 연구',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 안에서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성찰적, 해방적 접근방법이며 실천, 연구 및 학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용환(2015)은 우리나라 실행연구의 거의 모두가 현장 밖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자와 현장 참여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으며, 계획-실행-평가 과정의 나선형적 순환과 중층적 피드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며, 심지어 판에 박힌 듯 정형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3. 포토보이스(Photovoice)

포토보이스에 대한 논의는 Wang & Burris(1994)가 중국 농촌의 여성의 모성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포토노벨라(Photo Novella)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포토노벨라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권한부여를 통한 역량강화교육, 페미니즘 및 다큐멘터리 사진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들은 먼저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운남성의 두 현의 정책지도자와 전문가들로 정책그룹을 조직하고 총 4개의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연구참여자인 여성이 직접 사진을 찍는 포토노벨라를 포함한다. 포토노벨라는 특히 여성이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일상 생활을 자유롭게 촬영할 것이 강조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62명이 선정되었고 포토노벨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포토노벨라에 대한 의미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보이스로서의 사진의 의미이다. 중국 여성들에게 사진은 자신의 일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려되었고 그

렇게 형성된 지식은 참가자들에게 공유되고 이전되었다. 이미지와 말의 조합인 사진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정책으로서의 사진이다. 포토노벨라는 오직 농촌 여성 스스로가 정의한 관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및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포토노벨라는 시각적이고 연상적인 사진을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정책그룹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학습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전문적인 외부인이 아니라 무력감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타인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발생(Wang & Burris, 1994)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찍는 것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포토보이스는 질적 연구방법의 한 종류이지만 내러티브, 민속지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를 자기 삶을 가장 잘 알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사진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권한을 연구참여자가 갖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는 공동연구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갖는다. 둘째, 포토보이스는 참여자의 욕구와 상황을 대변하고 옹호한다. 포토보이스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소수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 셋째, 따라서 포토보이스는 사진을 통해 현상을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와 지역사회에 그 의미를 전달하여 문제의 해결과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허원빈·오영삼, 2020).

포토보이스 연구단계로 Latz(2017)는 파악, 모집, 교육, 기록, 설명, 개념생성, 발표, 확증의 8단계를 제시하였다. 파악(idendification)의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만들어낸다. 연구장소, 대상, 목적을 파악하고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모집(invitation)의 단계는 주제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한다. 양적 연구와는 달리 의도적 표본추출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교육(education)의 단계는 연구진행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어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를 준비시키고 태도와 역량을 갖추게 한다. 기록(documentation)의 단계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관해 단서, 질문, 각본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눈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설명(narration)의 단계는 참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주제로 토론하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한다. 해석은 참여자의 몫이고 설명을 통해 얻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구자는 자료로써 해석하고 활용한다. 개념생성(ideation)의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설명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제를 뽑아낸다. 발표(presentation)의 단계는 전시 형태를 주로 띠는데 책자, 웹, 박물관 전시 등 다양할 수

있다. 발표단계에서 참여자는 정책결정자에 보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확증(confirmation)의 단계는 참여자의 의미와 해석을 확인하고 의도한 대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연구의 전 과정을 점검, 평가하고 참여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한다.

#### 4.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한 신승환에 따르면, 포스트(post)의 의미가 다양하다(신승환, 2003). 신승환(2003)은 리오타르(J.P. Lyotard)가 포스트의 의미로 밝힌 이후(after), 반대(anti) 및 넘어서(trans)를 인용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을 근대 혹은 근대의 사유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해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철학적 사조로 이해한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탈식민주의는 시간적으로는 식민주의 시대 이후(after)이지만 식민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식민주의적 사고와 인식에 반대(anti)하고 이를 극복(trans)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혹은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식민주의는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계 안팎의 과시적인 권력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 정책이다(Young 2001; Rukundwa & Aarde, 2007에서 재인용). 서구세계는 식민지 통치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서구는 우월, 비서구는 열등 등의 이데올로기 조작이나 정치적 왜곡을 통해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피지배민중에게 내면화시킨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결과 많은 식민지의 독립 이후에도 제국주의와 그 실천으로서의 식민주의가 여전히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가 신식민주의이다. 신식민주의는 산업화된 강대국이 독립 이후 국가의 문제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간섭하는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이다. 신식민주의는 탈식민지국가가 독립한 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 지배에 대처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Young, 2001; Rukundwa & Aarde, 2007에서 재인용).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식민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스 카사스 주교의 반식민지 캠페인, 19세기의 자유주의적 노예제 반대운동과 제국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들 수 있다(Young, 2001; Rukundwa & Aarde, 2007에서 재인용). 탈식민주의 이론은 그 이후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3개 대륙 국가에서 해방 투쟁을 벌인 사람들의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탈식민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 시점, 지리적 위치,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상황과

관계, 그리고 글읽기의 실천에 적용되어 왔다(김영천·주재홍, 2013).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과거 식민주의에 대한 기억과 성찰로 출발한 탈식민주의 비평은 Said(1978)의 오리엔탈리즘, Bhabha(1994)의 양가성과 혼종성, 그리고 Spivak(1988)의 하위주체(Subaltern) 등의 개념 등에 의해 서구제국주의 문화를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저항이론으로 발전하였다. Said(1978)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이라는 타자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며 사상, 문화, 역사는 권력의 구성을 연구해야함을 강조하였다(Jack & Westwood, 2006). 따라서 동양에 대한 기술은 순수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서구 주체가 수동적인 비서구 주체를 알고 지배하는 권력행사의 일부인 것이다. 결국 Said(1978)에게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인 것이다. Bhabha(1994)는 문화의 위치에서 서구의 식민담론이 피식민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피식민 민중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혼종성이 생기고, 정체성은 안정되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양가성을 갖고 있으며, 피식민지들이 흉내내기와 같은 상징적 저항을 통해 반식민주의에 저항을 한다고 주장한다(김문환, 2004). 또 Spivak(1988)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민지 여성들과 같은 하위계층(subaltern)에 주목하면서 제국주의적 담론과 가부장적 민족주의 담론 사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과정을 분석했다(김문환, 2004). 여성은 대변되었다고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와 의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해 되풀이해 씌여진 것이다.

탈식민주의이론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 분석을 넘어 현실을 변화시킬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보격차, 초국가 혹은 탈민족, 디아스포라, 서발턴 연구 그리고 대안적 근대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로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김영천·주재홍, 2013). 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인종, 성, 계급, 민족, 종교 등의 소수자 문제에도 유연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영천·주재홍, 2013).

## 5.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팬데믹,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 인간다움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은 공생할 수 있는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온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은 근대사회 시작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도덕적 가치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철학이자 문화이론이다(윤옥한, 2022).

포스트휴머니즘의 접두사 포스트(Post)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와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으로서 휴머니즘의 이후(after), 휴머니즘의 가정에 대한 반대(anti) 및 휴머니즘의 한계의 극복(trans)을 포함하는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Crellin & Harris, 2021).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즘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휴머니즘은 일반적으로 인간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로 불리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넓은 범위의 사상적, 정신적 태도 및 세계관이다. 휴머니즘은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표적으로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근대의 세계관으로서 휴머니즘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휴머니즘은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던 중세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었고, 신의 재림이 아닌 인간의 부활에 대한 갈구였다.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로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주체의 원천으로 여긴다(Crellin & Harris, 2021).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 자율적이며, 유일한 이성적 존재이며, 다른 생물보다 우월한 예외적 동물인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각 분야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관련된 담론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루어진다(윤옥한, 2022). 포스트휴머니즘은 첨단 기술을 통하여 유전자 조작, 생명 연장 등으로 인간의 신체를 변형하고 인간의 정신까지 도덕적으로 향상하려는 현대 과학 기술의 시대를 인문학적으로 일컫는 말이다(윤옥한, 2022). 포스트휴머니즘은 크게 트랜스휴머니즘, 反포스트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능력 향상 기술의 사용을 수용하면서 인간 본성은 불변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생물학자 Julian Huxley(1927)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Nick Bostrom과 David Pearce에 의해 발전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근대적 인간관의 확장을 바탕으로 두고서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강화와 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급진적인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을 정보패턴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反(anti)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사용에 반대하는 흐름인데, 대표적으로 Fransis Fukuyama를 들 수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인간 본성이란 유구한 세월 동안 진화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인간이 스스로 기술을 통해 인간 본성을 변화시킨다면 윤리적, 정치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反(anti) 포스트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 향상이 결국은 인간 본성, 혹은 인간의 자유, 인간 사회의 유대감을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인간 강화 기술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와 기술결정론에서 벗어나 인간을 둘러

싼 다양한 경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다양한 타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혼종적 인간/비인간 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는 새로운 삶의 문법에 대한 모색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상규, 2021). 그 중 대표적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은 근대적 휴머니즘의 이론적 기반과 비교하여 인간, 자연, 사회의 경계를 무력화하고 각각에서 위계를 없애고 있다. ANT의 세상은 복잡하고 항상 요동치고, 서로 얽혀 있고,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면서 변화하는 잡종적인 세상이다.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잡종적인 존재들에 힘입어 자연, 사회, 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동시에 구성된다(홍성욱, 2010). 또 ANT는 비인간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한다. 사회를 인간-비인간의 복합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비인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이며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다(홍성욱, 2010).

## 6. 비판적 연구접근법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비판이론과 해체적 패러다임의 질적 연구 접근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질적 연구 접근법의 철학적 배경과 세계관은 근대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근대의 세계관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유일한 개체로서의 인간을 절대화하며 자연에 대한 수학적 및 과학적 이해를 통한 정복을 합리화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대의 세계관은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 발전시켰으며,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대공황과 불평등의 심화, 세계대전 및 기후재앙 등은 더 이상 근대의 세계관과 시대정신으로는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와 기술결정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혼종적 인간/비인간 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고 있다(신상규, 2021).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은 근대적 휴머니즘의 이론적 기반과 비교하여 인간, 자연, 사회의 경계를 무력화하고 각각에서 위계를 없애고 있다. 또 포스트식민주의는 서구제국주의의 문화를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저항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김영천·주재홍, 2013).

둘째, 비판이론과 해체적 패러다임의 질적 연구접근법은 연구를 통한 연구자의 실천과 이를 통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양적 연구 접근법은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구와 실천을 분리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Said(1978), Bhabha(1994), Spivak(1988)의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성 소수자, 소수 인종 등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비판적 담론분석(CDA),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소수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포토보이스, 현장 안에서 현장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참여적 실행연구(PAR) 등에서 연구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하고, 실천으로서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질적 연구접근법은 연구참여자를 연구의 대상이 아닌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자로 대한다.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유일한 원천은 연구참여자들의 생각, 인식과 경험을 표현하는 말, 글과 사진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텍스트를 해석하고 맥락화하여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인도의 여성들이 제국주의적 담론과 가부장적 민족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과정을 연구한 Spivak(1988)의 연구, 중국 농촌여성의 모성건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참여자인 여성이 직접 자신을 찍는 Wang & Burris(1994)의 연구, 현장 사람들을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 참여자 혹은 주인으로 관점으로 사고하는 참여적 실행연구 등은 질적 연구접근법에서 연구참여자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넷째, 모든 질적 연구접근법은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사례는 경계가 있는 개인, 집단, 프로그램, 사건, 활동 등이 포함된다(Yin, 2009). Creswell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 접근법을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및 사례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개인의 인생사가 사례이고, 현상학은 경험을 공유한 개인들이 사례이며, 근거이론은 현장에서 다수의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문화기술지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사례로 다룬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접근법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연구, 포토보이스 연구, 참여적 실행연구 및 자문화기술지 등에서 개인, 집단, 프로그램, 사건, 제도 등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선정한 사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서, 기록물, 면접, 직접 관찰, 참여 관찰 및 물리적 인공물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Yin, 2009).

〈표 4〉 다섯 가지 질적 연구 접근법의 특성 비교

특성	비판적 담론분석	참여적 실험연구	포토보이스	탈식민주의	포스트휴머니즘
<b>초점</b>	지배적 담론을 극복하기 위해 대항담론을 탐색	현장의 문제를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방안 탐색	사회적 소수의 역량강화와 해결방안 탐색	식민담론이 미치는 영향과 극복 탐색	인간 중심의 근대적 사고를 초월하여 인간, 비인간, 기술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주체와 상호작용을 탐색
<b>설계에 가장 적합한 문제 유형</b>	기호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폭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할 때	현장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제국주의를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할 때	인간/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고자 할 때
<b>학문배경</b>	언어학, 기호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페미니즘, 사진학	문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생물학, 사회학, 정보통신학, 미래학
<b>분석단위</b>	사회적 관계, 권력, 제도, 신념, 문화적 가치 등	현장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	국가 및 정치체제, 문화 및 정체성, 경제 및 사회구조, 인권, 지역, 하위계급 등	인간, 비인간(동물, 식물), 네트워크
<b>자료수집 형식</b>	기호화된 텍스트	심층면접, 참여관찰, 현장조사, 문헌연구	사진	문헌연구, 현장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헌연구, 심층면접, 참여관찰
<b>자료분석 전략</b>	언어적/비언어적 분석, 인과관계 분석, 상호작용 분석	연구참여자와 함께 현장의 문제 파악, 변화 계획 수립, 실행, 평가후 실행	연구참여자가 직접 찍은 사진에 대한 해석, 공통적인 주제 도출	정형화된 전략 없음	정형화된 전략없음
<b>보고서 작성</b>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극복을 위한 가능한 방법 제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연구참여자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기술, 정책결정자에게 전달	식민담론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위한 글쓰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주체성과 정체성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기술
<b>비고</b>	질적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방법론	참여적 실험연구의 한 형태	철학	철학

주: Creswell(2013)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 III. 결론: 협동조합 연구를 위한 제언

비판이론과 해체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질적 연구접근법의 특징은 근대적 세계관인 실증주의, 이성주의 및 인간중심주의와는 그 결이 다르며, 실천으로서의 연구와 문제해결에 주목하고, 연구참여자와 공동으로 연구가 수행되며,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위한 분석과 그 함의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 질적 연구가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질적 연구에 특화된 전문적인 학회지도 여럿 활동하고 있지만, 틀에 박힌 듯 정형화되어 질적 연구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협동조합 연구에서 질적 연구다운 질적 연구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연구야말로 비판적 접근법에 주목해야 한다.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넘어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치열한 모색과 그를 위한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출발한 그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과 결부될 수 밖에 없다. 시장만능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비판적(Critical) 거대담론이 붕괴·약화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정당성과 실천적 의의를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끊임없이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사회적경제를 정부의 지원만을 통해 유지되는 경제로 폄하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맞서 담론의 영역에서 그 허구성을 밝히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의의를 논증해야 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 협동조합연구에서 우리는 보다 더 비판적(critical)이어야 한다.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넘어 연구문제의 설정단계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제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례연구는 참여적 실행연구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포토보이스를 이용하여 두레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 사례연구를 수행한 김선화·장승권(2019)의 연구는 연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욕구와 상황을 자신이 선택한 사진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의 과정과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례연구가 아닌 참여적 실행연구로써 의의를 갖는다.

둘째, 질적 연구의 철학적 전통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교과서인 Creswell의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2010)에서는 총 11개 chapter 중 2장에서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 틀’을 다루고 있고, 김영천 외의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2019)에서는 총 12개 chapter 중 1장에서 ‘자신의 연구 패러다임 인식하기’를 다루고 있는데 질적 연구접근법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질적 연구접근법이 근대의 철학과 학문전통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제기라면 근대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질적 연구접근법의 역사를 형성한 해석학, 현상학, 푸코, 하버마스까지 근대와 근대를 넘는 다양한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서도 철학적 배경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교육과정도 학기의 최소한 절반은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질적 연구접근법이 과정과 절차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방법론임을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다운 질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치열함과 사명감이 요청된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방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며, 이를 시작으로 대항담론을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성담론의 교체를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게 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연구자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김문환(2004),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 김선화, 장승권(20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천공동체 학습: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두레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 사례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2(2), 1-30.
- 김영천, 정상원, 조재성(2019),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주재홍(2013), 다문화 교육 연구를 위한 탈식민주의 이론의 역할과 가능성, 열린교육연구, 21(4), 69-93.
- 신상규(2021), 포스트휴먼 담론과 SF 의 포스트휴먼 서사, 교양교육과 시민, 4, 33-68.
- 신승환(200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Vol. 27), INITIAL COMMUNICATIONS Corp.
- 신진욱(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10-45.
- 윤옥한(2022),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과 미래 교육의 방향 탐색, 인간연구, (48), 7-32.
- 조용환(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차태서(2020), 담론분석이란 무엇인가?, 국제지역연구, 29(1), 137-173.
- 한상희(2013), 실행연구의 이론적 배경 탐색, 교육과학연구, 15(2), 105-128.
- 허원빈, 오영삼(2020), 포토보이스 지식형성 구조에 관한 이해: Nonaka의 지식창조이론 (knowledge creation theory)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28(2), 74-110.
- 홍성욱 역음(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 Crellin, R. J., & Harris, O. J. (2021), What difference does posthumanism make?,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31(3), 469-475.
- Cresswell, J. (2010),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5).
- Fairclough, N. (201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pp. 9-20). Routledge.
- Fairclough, N. (200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s a method in soci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5(11), 121-138.
- Gee, J. P. (2014),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Theory and method*. Routledge.
- Jack, G., & Westwood, R. (2006), Postcolonialism and the politics of qualitative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6, 481-501.
- Latz, A. O. (2017),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A practical guide from theory to exhibition, Taylor & Francis.
- Lewin, K. (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4), 34-46.
- Reason, P., & Bradbury, H. (Eds.). (2001), *Handbook of action research: Participative inquiry and practice*. Sage.
- Rukundwa, L. S., & Van Aarde, A. G. (2007), The formation of postcolonial theory.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63(3), 1171-1194.
- Wang, C., & Burris, M. A. (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 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171-186.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Vol. 5), sage.
- Zuber-Skerritt, O. (2001), Action learning and action research: paradigm, praxis and programs. *Effective change management through action research and action learning: Concepts, perspectives, processes and applications*, 1(20), 1-27.

<p>논문접수일 : 2025년 1월 22일</p> <p>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5일</p> <p>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19일</p>
--